

문화

내년 출범 광주문화재단 30일 발기인 총회

지역문화 새 쉰크탱크 뜬다

이사진 15명 선출... 직원 20여명 공개채용

25일 노성대 전 MBC 사장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내정되는 등 광주문화재단 설립이 본격 계도에 올랐다.

광주문화예술재단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광주문진위)와 광주 공연예술재단이 통합돼 새롭게 출범한 문화단체로 광주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 쉰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문화재단은 오는 30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총회에서는 이사장(광주시장)과 대표이사를 포함 모두 15명의 이사진을 선출하게 된다. 이사진에는 당연직으로

광주시 문화정책 실장이 참여하며 감사 1명도 선임한다.

조직은 2실3팀으로, 2실은 문화정책실(정책기획팀·홍보협력팀), 문화관광실(축제사업팀·문화관광 진흥팀)로 짜여진다. 3팀은 문화예술사업팀, 경영관리팀, 시설운영팀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사업팀은 기존 문진위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며 축제사업팀은 광주공연예술재단이 진행했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정음극제음악제, 전국합창경연대회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조직위원회 등이 맡아 치렀던 '아트광주' 역시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그밖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공연 시설인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위탁운영도 맡는다.

지역문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직원 채용은 다음달 중순께 법원 등기절차를 마친 후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0여명 안팎이다. 최근 청산 절차를 마친 광주공연예술재단과 광주문진위 직원들을 포함,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도 예산은 현재 광주문진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50억원과 내년에 새롭게 출연하는 기금 30억원, 운영비 11억 4000만원 등으로 짜여진다. 재단측은 추경예산 심의 때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며 최소 5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예=김태희작 '신의 울동'

제25회 무등미술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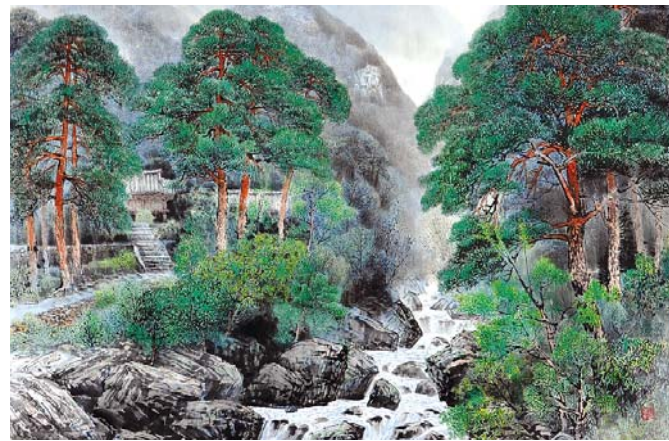
감각·기법 조화 이뤄 작품성 최고

8개 부문에 총 987점 출품 656점 입상

비엔날레 전시관서 12월 8~14일 관람



▲서양화=배정강 작 '너에게 묻는다'



▲한국화=김숙자 작 '슬학기'



▲판화=홍지애 작 '생명의 기원'



▲사진=채미정 작 '손길'

2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심사를 마친 제25회 무등미술대전에서 '너에게 묻는다'를 출품한 배정강(52·경기도 성남)씨가 서양화 대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화 부문에서는 '슬학기'를 낸 김숙자(51·경기도 부천시)씨가 대상을 받았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서양화 등 8개 부문에 987점이 접수돼 대상 8점, 우수상 15점, 특선 201점, 입선 432점 등 656점이 입상작으로 뽑혔다. (입상자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 참고)

특히 서예 부문에 우수작품이 많았고, 조각 부문에서는 목조의 재질감과 표현기법이 탁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예 부문에서도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이 다수 출품됐고, 서양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한국화 부문은 창의력에 중점을 둔 이색 작품이 다수 출품됐고, 문인화부문의 서정성 짙은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장 최영조(서양화가)씨는 "신선한 감각과 전통적인 기법이 잘 조화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참여 작가들의 노력이 엿보였다"고 평했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문인화=정연자(53·순천시) 작 '선암사의 봄' ▲판화=홍지애(38·광주시 광안구 신창동) 작 '생명의 기원' ▲조각=한국인(26·서구 화정동) 작 '무리수' ▲공예=김태희(25·북구 임동) 작 '신의 울동' ▲서예=이명숙(55·북구 문흥동) 작 '우리가 사는 날' ▲사진=채미정(33·전주시) 작 '손길'

시상식은 오는 12월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입상작은 같은 달 8~1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전시된다. 문의 062-233-192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 만 번의 셔터... 감동의 사진 한장



정해선 작 '무등산의 여명'

내달 1일까지 무등사진동호회전

'결정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사진 작가들은 오랜 시간 산 자락과 강가에서 수 만 번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지역의 대표 사진작가 단체인 광주무등사진동호회(회장 정해선)가 오는 27일~12월1일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제43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문병호·강종봉·박근형·정해선·안상철·이경섭·이우영·박극민·이형주·이동명·윤장현씨 등이 참여해 남도의 산과 강 등의 자연을 담은 작품을 발표한다.

지난 1968년 창립한 광주무등사진동호회는 각종 사진 촬영 강습과 수 십차례의 단체전을 열었다. 문의 062-654-43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피아니스트 조연미 귀국독주회

30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조연미(사진)씨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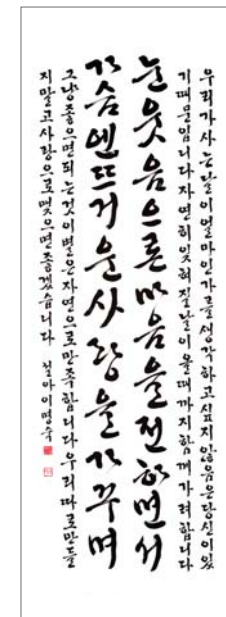
광주예고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재학 중 독일로 유학, 예선 폴크방극대학을 우수

한 성적으로 졸업한 조씨는 오스투니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현지에서 피아노 솔리스트로 활동한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다.

조씨는 이번 독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Op.109'와 독일 작곡가 카를

하인츠 슈톡하우젠의 '피아노 소품', 그리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D 959'를 연주한다.

조씨는 올해 7월 독일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준비 중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예 이명숙 작 '우리가 사는 날'



▲문인화 정연자 작 '선암사의 봄'



▲조각 한국인 작 '무리수'

Advertisement for Geumsoo Jang restaurant. Text includes 'www.geumsoojang.com', '송년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eumsoo Jang Hotel and Arirang House.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Includes 'moviehelic' and 'MEGABOX' sections with movie listings for '인스트퍼블', '초능력자', and '이층의 악당'.